

진정한 책임기를 위한 즐거운 출발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나 즐거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평범한 독자라면 책임기의 재미만을 떠올리기 십상이겠지만, 가령 저자의 경우라면 책을 쓰는 재미가, 출판업자나 서점인이라면 책을 만들거나 파는 즐거움이 읽기의 그것에 결코 못지 않을 것이다.

물론 책쓰기나 책만들기, 책팔기 등은 아무래도 특수한 재능에 속하는 것인만큼 그 재미와 즐거움의 영역에 누구나 동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나 즐거움의 크기는 책임기의 그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범한 독자라 할지라도 약간의 전향적인 관심과, 그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가 준비돼 있다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우선 책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굳이 읽지 않아도 좋다. 예컨대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 구멍가게 규모의 동네 책방에라도 가끔씩 들러 서가들 사이를 게으르게 오가며 이 책 저 책 한가로이 들춰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책의 숲이 내뿜는 방향속에서 책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책 구경에 재미를 느꼈다면 이제는 책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때이다. 이 단계는 마음에 드는 책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는 점에서 보다 선택적이고 적극적인 재미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굳이 읽지 않아도 좋다. 실제로 그것을 읽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한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개 기분좋은 정신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며, 그 포만감을 일러 수준이 낮다고 매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즐거움들은, 실제적인 책임기와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즐거움들은 허망한 정신의 사치에 그칠지 모른다. 즐거운 책임기를 위한 진정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사고 모으고 정리하며, 마침내는 기꺼이 버리는 일이 갖는 의미가 소중하다는 것이다.

책을 사는 데 재미를 붙이게 되면 다음 단계로 그것들을 모으는 즐거움이 기다린다. 이제 비로소 책장을 마련하고 거기 빼곡히 꽂힌 책들을 바라보며 어떤 대견함과 흐뭇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공간적인 여유만 허락된다면 서재를 꾸미는 호사를 누리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간밤의 숙취로 일찍 잠이 깬 새벽녘쯤, 정작 책을 읽지 않으면서도 서재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잦아진다. 좀 극성스런 축에 드는 이들은 모은 책을 정리하는 재미도 간간히 만끽한다. 한 가한 휴일이면 서가에 꽂힌 책들을 온통 들 어낸 다음, 소설은 소설끼리 시집은 시집끼리 다시 훑아보기도 하고, 혹은 책이나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또 때로는 책의 크기에 따라 작은 책과 큰 책들을 구별하여 가지런히 다시 정리하는 등의 '즐거운 번덕'을 부러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 뒀던 책인데도 없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똑같은 책이 두 권이나 있는 게 발견돼 실소를 흘리기도 한

다. 이른바 애서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가 책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하다는데, 가령 사 모으기만 할 때는 그저 속표지 어디쯤에 제 이름을 써 넣는 것으로 족하던 것이, 그럴듯한 藏書印을 새겨 책마다 광곽 도장을 찍음으로써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 장서인을 찍으며 느끼는 '손맛' 또한 썩 괜찮은 편에 속한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책을 버리는 데에서 나온다. 물론 버린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건 山寺의 禪僧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속아별 뿐이다. 한때는 절실하게 다가왔으나 이제 그 절실함의 농도가 묽어져 시효가 다한 책이 슈아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나는 책의 양을 감당할만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억울하게 서재 밖으로 내몰리는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때의 집착을 풀고 책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심을 요구하는 일인 동시에 역시 그만큼 크기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즐거움들은, 그러나 결국, 실제적인 책임기와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즐거움들은 단지 허망한 정신의 사치에 그칠지도 모른다. 진정한 책임기를 위한 즐거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사고 모으고 정리하며, 마침내는 기꺼이 버리는 일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경험치 못했다면, 우선 책구경부터 나서 볼 일이다.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141호 / 1994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인쇄인—이일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운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용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권영빈	김장태	김광수	김문환	김석만
김성곤	김인종	김영한	김인회	김종원
김치수	김태준	김태현	김태형	박명순
박성래	박세희	반성완	변형운	서연호
송상용	신복룡	신용하	안병영	안휘준
양문길	오광수	유일상	윤지관	이강숙
이경훈	이광주	이기상	이두영	이만열
이병훈	이상일	이승우	이원복	이중환
이희재	임희섭	장평화	장희익	정병규
정석종	정운영	정진석	정진홍	조남현
조대현	최종고	한상진	한승현	허석열
홍정선	황현산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스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파라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 우화/로버트 짐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뎬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효련 엮고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홍신자의 자유롭고 과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신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톨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어드 T. 스펠딩/정장영 옮김/7,000원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현 지음/3,500원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엮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